

공정위, 신고자도 심의 전 의견 낸다 사건처리 절차 등 참여권 대폭 확대

상정 사실 신고인에 즉시 통지
정식 심의 전 의견 낼 길 열어
피심인 중심 절차 보완에 초점
처분 투명성·공정성 제고 기대
중복신고 확인해 부처 협업 강화
내달 7일까지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피심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 위주로 흘러가던 심의 단계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넓혀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는 취지다.

공정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의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신고인에게 사건심사 착수 사실, 조사진행 상황, 심의개최일, 사건처리 결과 등만 통지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까지 통

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피심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신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핵심 과정이다. 개정안은 신고인 등이 심사관에게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해, 정식 심의 전부터 신고인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사건 처리 효율

성과 부처 간 협업을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부당 표시광고 신고서식에 '타 기관 중복신고 여부'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해, 신고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타 부처에 신고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부처 간 협업을 원활히 진행토록 했다.

또한 부당지원행위 중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의 기준이 되는 지원금액 기준을 현행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현실화했고, 공정위 직제 개편에 따라 각 사건 신고서 하단의 상담 안내 담당 부서명(과·팀)과 전화번호 등 조문 체계도 일제히 현행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까지 보장됨으로써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의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올여름 여행은 농촌으로 떠나요”

농식품부, 농촌여행 페스티벌 개최
송미령 장관 서울광장 행사 참석



미있게 농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송장관이 밝힌 정부 추진 사안은 ▲다양한 농촌의 부존자원을 연계

정부가 도시민의 농촌여행 장려에 나섰다. 각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미식 상품과 지역 특색을 살린 볼거리 창출 등 농촌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대국민 홍보 목적의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16일 직접 행사장을 찾았다. 그는 기념사를 통해 "농촌은 자연과 문화, 미식과 치유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관광자원"이라며 가족단위 농촌 여행을 권했다.

농촌여행 페스티벌 행사 관련해서는 "도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쉼과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고, 농촌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이 되며, 지역경제에는 소중한 힘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쉽고 재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 개발·운영 및 홍보 지원 ▲K-푸드와 농촌관광을 연결하는 K-차니벨트 등 미식벨트 조성 확대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 조성 및 편의·안전 인프라 확충 등이다.

송 장관은 이날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국무위원들에게도 농촌여행 관련한 홍보를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여름 여행은 농촌으로', '비빔 일상 속 쉼표 촌캉스'라는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도 열렸다. 송 장관을 비롯해 각 유관기관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장, 농업인단체장 및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T 글로벌마케팅 교육, K-푸드 수출 성과

승화푸드, 美 벨로팜스와 수출 계약
간편식 4종 1억1000만원 첫 선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소속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글로벌마케팅 교육'이 실제 해외 수출로 이어졌다.

16일 aT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의 교육생 기업인 승화푸드는 미국 현지유통사인 벨로팜스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1억1000만 원 상당의 첫 물량을 지난 12일 선적했다. 승화푸드는 김치 등 절임식품, 간편식, 밀키트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해당 수출계약은 지난해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의 K-푸드 아카데미 제4기 농식품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과정'에서 마련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계기로 성사됐다. 수출 품목은 잡채, 호박죽, 고구마 맛탕, 탕평채 떡볶이 등 간편식 4종으로, 미국 전역의 벨로팜스 유통망 22개 매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승화푸드는 교육과정에서 미국 시장 분석, 현지 소비자 트렌드 파악, 바이어 상담 전략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했다. 또한 담당 교수의 1:1 코칭과 실전형 바이어 상담회를 거쳐 실제 수출 계약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과정'은 농식품 제조·유통 및 수출 희망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상품력 강화 전략 ▲전략적 광고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출 실무 이해 ▲바이어 발굴 지원 ▲글로벌 인증과 수출 계약 분쟁 대응 전략 ▲글로벌 전자상거래 입점 및 마케팅 전략 등이다. 또 국내외 선도기업 현장 방문과 국제식품박람회 참관 등 해외연수도 함께 진행된다.

기운도 aT 유통이사는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의 현장 중심 실무교육이 농식품 종사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전KDN, AI 채용으로 신입 175명 선발

전년비 75% 늘린 대규모 채용
5500여명 지원, 경쟁률 32대1
6년 만에 5직급 채용 재개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인공지능(AI) 프로세스를 전격 도입하고 직무 중심의 열린 채용을 통해 상반기 신입사원 175명을 대거 선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5% 확대된 규모다.

한전KDN은 지난 15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 빛가람홀에서 '2026년 신입사원 입사식-KDN New Beginning'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 55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32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채용은, 특히 취업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에 5직급 채용을 재개해 취업 시장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한전KDN은 이번 채용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프로세스'를 본격 도



박상형(오른쪽 첫 번째) 한전KDN 사장과 노조 대표가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대표에게 환영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KDN

입해 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우선 서류전형 과정에 AI를 활용해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에 내포된 중대 결함을 사전에 검출할 수 있도록 해 지원자 편의성을 제고했다. 전산 분야에는 AI 활용 실기 평가를 새롭게 도입해 직무 최적화 맞춤형 인재를 선별했다. 면접 과정에서 AI가 분석한 지원자별 자기소개서 맞춤형 질문지를 활용해 심층적인 역량

검증을 진행했다.

여기에 6년 만에 재개된 5직급 신입사원 채용에는 지원 자격 제한을 완전히 폐지했다. 필기시험의 직무 지식 비중을 65%로 확대하고 1인당 면접 시간을 늘리는 등 철저히 '현장 직무 중심'으로 채용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다양성에 기반한 열린 채용도 돋보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력거래소, 충북 오송 중부본부 개청

나주 중앙관제센터와 실시간 연동
재난 상황에도 계통·시장 가동 지속

전력거래소가 충북 오송에 새로운 중부본부를 개청하며, 국가 전력계통과 전력시장이 대형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가동될 수 있는 '상시 이중화 운영체계'를 갖추게 됐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15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바이오플리에서 '중부본부'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부본부 개청은 육지 이중 전력관제센터 구축과 함께 차기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및 차기 전력거래시스템(MMS)의 운영 개시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운영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일원에 자리 잡은 중부본부는 연면적 7840㎡,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사업비 약 377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건축물 에너지효

율 1++등급과 제로에너지 4등급을 획득하는 등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건축물로 건립됐다.

중부본부 건립은 지난 2017년 천안 지역 산사태 당시 발생한 후비 전력관제센터 침수 사고를 계기로 전력계통 운영의 재난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0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본격 추진됐다.

중부본부의 가장 큰 특징은 나주에 있는 중앙전력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이중 전력관제센터 및 전력거래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소·연안선사 금융지원 1조1000억 투입

해수부·해진공, 2차 특별지원 추진
1차보다 5000억 늘려 6년간 지원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연안선사에 대한 '해양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 이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제2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2026~2031)'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2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총 지원 규모는 6년간 총 1조1000억원으로, 1차(2022~2026) 때보다 100% 이상(+5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대상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신규로 포함했다. 또 기존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지원 기준을 이제 막 중견기업에 진입해 지원 공백을 겪는 '신규 중견선사'로 확대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기존 대비 20%포인트(p) 상향해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대출이자 지원 금액 한도도 대출원금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해운조합·예선조합 등을 통해 2척 이상 선박을 공동 발주하는 경우에 대한 금리 우대 조항을 신설했다.

2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이달 17일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해운정책과 또는 해진공 중소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중소·연안선사와 예·도선사는 국내 해운산업을 받쳐주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제2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중동전쟁과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